

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위촉식서… 새만금·부안 중심 산업 활성화·유치방안 논의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대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만금과 부안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크루즈선 유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이재 도의원, 관련 부서장, 크루즈 산업 전문가 등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크루즈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목표로 크루즈선 유치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대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크루즈산업 발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출입국·검역 관련기관 등 8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크루즈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중국 청도에서 열린 ‘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하여 ‘청도-인천-전북(부안)’을 연결하는 다모항 크루즈 항로 개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

이 선언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국 청도시, 인천광역시, 부안군 등 4

개 지역과 2개 항만운영사, 5개 중국 크루즈 선사, 2개 크루즈 연구기관 등이 참여, 크루즈 운영·관리 및 관광 상품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안전한 크루즈 기항지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크루즈 기항 안정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에서는 항로 여건 조사, 묘박지 검토, 텐더보트 안정성 평가, 터미널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크루즈 항만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새만금개발청 및 부안군과 함께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활동을 통해 전복을 대한민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크루즈산업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식 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농가 12만2,500호에서 농업인 18만8,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6,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도비 319, 시군비 477)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 촉구 단식투쟁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일부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항만 운영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식투쟁은 앞서 단식에 나섰던 군산시장의 뒤를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에서는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단식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고, 자문위원회 결과대로 무역할 지정에 해양수산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투쟁 돌입에 앞서 김영일 새만금특위 위원장은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조성되는 항만인 만큼,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로 운영됨이 당연하다”라며 “사측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은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당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창당 1주년 기념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혁신·회상·전환·성장...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혁신당, 기념행사 열고 당 미래 비전 공유... ‘사회권 선진국’ 비전 공식 발표
당 발전 기여 전북자치도당 당원들에 당대표 1급 포상... 도당, 정책 실천 앞장

조국혁신당이 3일 오후 2시, 창당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회합, 회상, 전환, 성장’을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당원 소통 프로그램, ‘신국문예’ 슬로건 공모전 발표, 당원 가치 앙케이트,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조국혁신당의 핵심 정책인 ‘사회권 선진국 비전’이 공식 발표됐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모델을 지향한다.

선언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며 당의 강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당 발전에 기여한 전북도당 당원 권덕창·신영자·최영심·최창현씨가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전북형 사회권 보장 정책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대학생연합회 “민주화의 땅에서 내란에 동조하는것인가?”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에 강력 반발... “개인의 권력 남용을 국민 권력으로 오판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대학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의 시국선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대학생연합회는 성명에서 “전북대학교는 4·19 혁명의 발원지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모교”라며, “전북의 대학생들이 피 흘려 지켜낸 민주화의 땅에서 반민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과 법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소수 강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5년 전 전북대학교에서 이세종 열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오늘날에도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무지비한 권력 남용을 국민의 권력으로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대학생연합회는 “역사를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새겨라”며,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의 시국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AI 온라인 직무교육 도입

Chat GPT·Copilot 활용 자료 검색 및 데이터 분석 실시 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소방감 이오숙)는 4일부터 소방업무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방본부도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개선과 업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챗지피티(Chat GPT)와 코파일럿(Copilot)을 활용한 자료 검색,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등 다방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기반 사진 생성, 동영상 자동 편집, AI 활용 PPT 제작, 회의록 요약 등 5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행정 혁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3,456명의 소방공무원 누구나 온라인 교육 전문 업체(성안당)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를 활용한 학습능력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혁신 기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AI 기술을 더욱 폭넓게 활용해 긴급자동차 현장 도착률,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도착률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감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본격화

총 213억 투입... 총 5419동 철거·지붕 개량 지원
이달부터 시군별 사업 공고... 즉시 사업 착수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3억원을 투입해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0년대 대량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에서 발생하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총 5,419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주택 4,103동과 창고 등 비주택 635동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취약계층 가구 681동은 지붕 개량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한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200㎡ 이하)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 취약계층 가구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200㎡ 이하 규모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및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외에도 지역사회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3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확정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량 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뤘었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신학기 맞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 신학기를 맞아 학령기 아동 사이에서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들에게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이 있다.

이들 감염병은 기침·재채기 시 나오는 침방울(비말)을 통한 전파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신학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주요 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가장먼저 지키기(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감염병 의심 증상 시 병원 진료받기 △감염된 경우 완치될 때까지 등교·등원 자체 △미접종 예방접종 완료 등이 있다.

특히 올바른 손씻기는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으로 보고됐다. /이만호 기자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기간 연장

14일까지... 위기 대응 단계도 ‘심각’ 유지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2주 연장하고, 위기 대응 단계도 ‘심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을 지속하고, 거점소독시설(30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나간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이 그대로 연장되며, 3월 14일까지 강화된 정밀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소독 주간에 운영되며,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하천과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위험구간을 집중 소독해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월 이후에도 철새 이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키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